

성서 속 동물 이름의 번역에 관한 소고 —메뚜기와 곤충을 사례로—

이영미*

1. 들어가는 말

성서는 역사적인 문서이면서 특정한 지역의 관습과 지리, 기후를 배경으로 한 지역 문화의 산물이기도 하다. 성서의 문화와 자연, 지리에 익숙하지 못한 번역자에게 특정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의 번역은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이다. 우선은 원천언어에서의 동물, 식물, 물건 등의 이름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그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딜레마에 부딪힌다. 또한 수용언어에서 그에 상응하는 단어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다른 두 언어 사이에 뜻이 빈틈없이 들어맞는 동의어(identical equivalent)를 찾기가 어렵다. 특별히 지리적 조건이 다른 지역의 동물과 식물, 사물의 이름을 번역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단어 자체를 찾기도 더 어렵다.

히브리어에 상응하는 지역 용어를 찾기 어려울 경우 번역자는 독자들에게 친숙한 그 지역의 용어로 바꾸어 번역할 것인지(domestication) 아니면 다소 낯선 외국의 용어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foreignization)를 선택해야 한다.¹⁾ 전형적인 예는 성서의 측량 단위와 같이 현 독자에게 낯선 성서의 용어를 번역하는 경우이다.²⁾ 성서의 ‘규빗’을 번역할 때 번역자는 이를 ‘자’, ‘미터’, ‘피트’, ‘인치’ 등의 현대 측량 단위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규빗’으로 그대로 옮길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살고 있지 않은 동물의 이름을 번역할 경우 한국 성서 번역자는 이와 가장 가까운

* 미국 Union Theological Seminary in the City of New York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한신대학교 구약학 교수. leetikvah@hanmail.net.

1) 로버트 쿵스, 『성서 속의 식물들』, 권성달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5), 1.

2) Ibid.

특성을 지닌 동물로 번역하거나 학명, 혹은 그에 해당하는 외국어 이름을 그대로 쓰거나 해야 한다. 가령 사막의 동물인 ‘이임(𐤇𐤍)’³⁾은 한국의 동물 중에 유사한 ‘승냥이’ 혹은 ‘이리’로 번역하거나 ‘자칼’(jackal)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동물 이름을 번역할 때 직면하는 또 다른 어려움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상응하는 용어로 옮겼는데 그 뜻이 달라지거나 심지어 상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용(龍)은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행운(good fortune)과 번영(prosperity)을 상징하지만 성서에서 용, 혹은 바다의 큰 괴물은 악(evil)과 사악함(wickedness)을 상징한다.⁴⁾

에드워드 R. 호프(Edward R. Hope)는 번역자들이 동물 이름을 번역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한다.⁵⁾

1. 성서 속의 동물과 동일한 대상에 해당하는 지역 용어로 번역한다.
2. 성서 속의 동물과 가장 유사한 동물에 해당하는 지역 용어로 번역한다.
3. 성서 속의 동물이 그 지역에 살지 않는 경우, 보다 일반적인 이름으로 번역하고 그 특징을 수식어로 덧붙인다. 경우에 따라서 각주로 보충 설명한다.
4. 성서 속의 동물이 그 지역에 살지 않는 경우, 잘 알려진 외국어 이름을 차용하여 쓴다. 각주로 그 특징을 설명하거나 성서 뒤편에 짧은 사전어 목록을 첨부한다.

호프의 설명은 성서 속 동물 이름을 지역 언어로 바꿀 때 그에 상응하는 어휘 선택에 좋은 지침으로 유용하다.

그러나 동물 이름이 문학적 맥락에서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은유로서 무언가를 상징할 경우 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는 번역자에게 또 다른 도전을 제기한다. 은유의 도구로 쓰인 단어에 상응하는 동의어를 사전에서 찾아 기계적으로 모든 본문에 적용하여 번역을 함으로써 본래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거나 잘못 전달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때 번역자는 낱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장르, 문학 이론 등을 고려하는 문학적 기능을 살펴 번역에 반영해야 본문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게 된다.

3) 사 13:22; 34:14; 렘 50:39.

4) Edward R. Hope, *All Creatures Great and Small: Living Things in the Bible*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2005), 3. 『성서 속의 동물들』로 번역본 곧 출간 예정.

5) Ibid.

최근의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일반적인 경향도 기능주의와 문학적 관점에서 번역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⁶⁾ 동물 이름을 번역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형식 동등성(formal equivalence)이나 내용 동등성의 원칙(semantic equivalence; dynamic equivalence)⁷⁾을 넘어서 문학적 기능의 동등성(literary functional equivalence)의 원칙에 따라 번역할 필요가 있다.⁸⁾ 원천 언어와 지역 언어 사이에 내용상의 대응을 추구하는 번역에 머무르지 않고, 원천 언어가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예술적 기교가 수용언어로 된 번역문에서도 ‘기능적으로’ 살아나는 번역이 될 수 있다.⁹⁾

물건이나 식물, 동물의 이름을 번역할 때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는 성서 번역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안내서를 출판하였고, 대한성서공회가 이 책들을 번역하기도 하였지만,¹⁰⁾ 한국의 성서 번역자들이나 학자들은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 노력의 하나로 이 글은 성서 번역자가 물건이나, 식물, 동물 등의 이름을 번역할 때,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는 노력과 함께 성서 본문의 ‘문학적 의미가 기능적으로’ 살아나는 번역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구약성서 속의 메뚜기와 곤충을 사례로 삼아 시도해보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먼저 구약성서 속의 메뚜기와 곤충의 특성과 문학적 기능(의미)과 한국의 메뚜기와 곤충의 특성을 한글 성서 번역에서 언급된 이름들을 중심으로 소개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글 성서 번역이 성서 속의 메뚜기와 곤충과 한국의 메뚜기와 곤충의 특성에 상응하는 용어를 선택하여 번역하였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끝으로 이를 바탕으로 시 평행구에서 동물의 이름이 동일하게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 기능 동등성의 원칙에 따라 이름 자체보다는 문학적 맥락에서의 의미를 살린 번역을 제안

6) 알루 모졸라,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성서번역”, 『성경원문연구』 14 (2004), 145.

7) Eugene A. Nida,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Leiden: E. J. Brill, 1964), 158-160.

8) 티모시 윌트, “문학적 기능의 동등성: 그 몇 경우”, 『성경원문연구』 15 (2004), 117-153.

9) 왕대일, “성서 번역 새로 보기 -문예적 번역과 문학 기능 동등성-”, 『성경원문연구』 20 (2007), 54; 문학적 기능 동등성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로는 이영미, “문학비평적 성서해석과 번역: 애가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7 (2010), 18-21을 참조하라.

10) 이 책들은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번역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발간하는 안내서(Helps for Translators) 중, 기술적인 도움(Technical Helps)을 제공하기 위한 시리즈로 출판되었다. 레이 프리츠, 『성서 속의 물건들』, 김창락, 박형대, 양재훈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1); Ray Pritz, *The Works of Their Hands: Man-made Things in the Bible*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2009); 로버트 쿵스, 『성서 속의 식물들』, 권성달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5); Robert Koops, *Each According to Its Kind: Plants and Trees in the Bible*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2012); Edward R. Hope, *All Creatures Great and Small: Living Things in the Bible*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2005), 번역본 곧 출간 예정.

해볼 것이다.

2. 메뚜기와 곤충 이름

2.1. 구약성서 속의 메뚜기와 곤충들

메뚜기와 곤충은 구약성서에서 다른 어떤 곤충보다 많이 언급된 중요한 곤충이다. 구약성서에 메뚜기와 곤충을 지칭하는 히브리어로는 ‘아르베(אַרְבֵּה)’, ‘하가브(חַגָּב)’, ‘솔암(סֹלָאִם)’, ‘하르골(חַרְגֹּל)’, ‘게브(גֵּב, 또는 고바이[גִּבַּי]’, ‘가잠(גָּזָם)’, ‘하실(חֲסִיל)’, ‘엘레크(אֵלֶּק)’, ‘첼라찰(צִלְצָל)’ 등 9개이다.¹¹⁾ 가장 일반적인 단어는 아르베(אַרְבֵּה)이다.

이 단원에서는 성서의 메뚜기와 곤충의 특징을 문맥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각 히브리어가 어떤 종류의 곤충을 뜻하는 단어인지 검토해볼 것이다. 이 작업은 히브리어 곤충 용어에 상응하는 지역 언어를 찾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히브리어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¹²⁾

2.1.1. 아르베(אַרְבֵּה)

아르베는 메뚜기와 곤충을 지칭하는 히브리어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용어이다.¹³⁾ 아르베는 출애굽기 10장에서 흔히 메뚜기 재앙으로 알려진 자연재해를 언급할 때 일관되게 사용된 단어이다. 출애굽기 10장이 묘사하는 아르베는 엄청난 숫자로 떼를 지어 다녀서 위협과 두려움의 대상이며(출 10:5, 12, 14), 농작물을 갉아먹고 초토화시키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출 10:5, 12, 15). 다른 본문에서도 아르베는 떼를 지어 다니며, 많은 수의 무리를 묘사하는데 언급되고 있으며(삿 6:5; 잠 30:27; 렘 46:23; 욥 2:25), 곡식을 남김없이 먹어 피해를 주는 존재로 언급된다(신 28:38; 삿 6:5; 왕상 8:37; 대

11) 메뚜기와 곤충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히브리어와 언급된 본문은 다음과 같다. 아르베 - 출 10:4, 12, 13, 14(2회), 19(2회); 레 11:22; 신 28:38; 삿 6:5; 7:12; 왕상 8:37; 대하 6:28; 욥 39:20; 시 78:46; 105:34; 109:23; 잠 30:27; 렘 46:23; 욥 1:4; 2:25; 나 3:15, 17; 게브 또는 고바이 - 사 33:4; 암 7:1; 나 3:17; 가잠 - 욥 1:4; 2:25; 암 4:9; 하가브 - 레 11:22; 민 13:33; 대하 7:13; 전 12:5; 사 40:22; 하실 - 왕상 8:37; 대하 6:28; 시 78:46; 사 33:4; 욥 1:4; 2:25; 하르골 - 레 11:22; 엘레크 - 시 105:34; 렘 51:14, 27; 욥 1:4; 2:25; 나 3:15(2회), 16; 솔암 (sol'am) - 레 11:22; 첼라찰 - 신 28:42; 사 18:1. 본문의 목록은 Edward R. Hope, *All Creatures Great and Small*, 201 (6.9.)에서 참조함.

12) 히브리어 표기는 처음과 제목에서만 표기하고 본문에서는 한글 음역으로 대신하였다.

13) 아르베 - 출 10:4, 12, 13, 14(2회), 19(2회); 레 11:22; 신 28:38; 삿 6:5; 7:12; 왕상 8:37; 대하 6:28; 욥 39:20; 시 78:46; 105:34; 109:23; 잠 30:27; 렘 46:23; 욥 1:4; 2:25; 나 3:15, 17.

하 6:28; 시 78:46; 105:34-35; 욥 1:4).

아르베는 레위기 11장의 식용 곤충 목록 중 하나로 언급된다. 레위기 11:20-21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먹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22절은 네 종류의 곤충-아르베, 하가브, 솔암, 하르골을 소개한다. 이 중에서 솔암과 하르골은 이 절에서만 나오며 위의 특징을 가진 곤충일 거라는 추측 이외에 정확히 어떤 곤충인지 알 길이 없다.¹⁴⁾

이상의 구절에서 얻는 아르베의 특성과 문학적 기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아르베는 뛰어오를 수 있는 특별한 다리를 가지고 있는 식용 곤충이다. 2) 아르베는 떼를 지어 이동하며 그 숫자가 많아서 인간들에게 위협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3) 아르베는 농작물의 피해를 주는 이동성 곤충이다. 이 때문에 큰 재앙으로 인한 심판의 도구로 자주 사용된다.

2.1.2. 하가브(חַגָּב)

하가브는 구약성서에서 5번 언급된다.¹⁵⁾ 레위기 11:22에서 다른 세 곤충과 함께 식용으로 쓰이며 뛰어오를 수 있는 특별한 다리를 가진 곤충으로 소개되었다. 역대하 7:13에서 하가브는 ‘땅에 있는 것을 잡아먹는 해충’으로 묘사된다. 민수기 13:33은 네피림 자손과 비교하여 이스라엘의 왜소함을 하가브 같은 존재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이사야 40:22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왜소함을 하가브 같은 존재로 묘사한다.

전도서 12:5의 본문에서 하가브는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문자적으로 하가브는 ‘오직 기어다닐 수 있다’를 뜻한다. 호프는 이 구절이 사람이 늙어가면서 맞이하는 노년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주석가들이 이를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1) 노인이 거동하기 어려운 상황을 묘사한다. 또는 2) 남자가 왕성한 정력을 잃어버린 것을 풍자하는 것이다. 만일 전자의 경우라면, ‘하가브’는 지금은 겨우 거동할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별명이다. 반면 두 번째 경우라면 이 단어는 남성의 성기에 대한 별칭이다.¹⁶⁾ 만일 이 시구가 무력감을 묘사하는 것으로 쓰였을 경우 이사야 40:22와 같은 맥락에서 왜소함 혹은 보잘 것 없음을 상징한다.

14) 솔암과 하르골은 구약성서에서 이곳에서만 한 번씩 언급되는 단어이므로 따로 단어의 상징성을 검토하지 않을 것이다.

15) 레 11:22; 민 13:33; 대하 7:13; 전 12:5; 사 40:22.

16) Edward R. Hope, *All Creatures Great and Small*, 204.

이상을 정리하면 하가브는 1) 뿔 수 있는 특별한 다리를 가지고 있는 식용 곤충이며, 2) 곡식이나 식물을 갹아먹고, 3) 왜소함을 상징하는 곤충이다. 하가브가 왜소함을 상징하게 된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 크기가 작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된다.

2.1.3. 게브(גֵב, 또는 고바이[גֵבִי])(사 33:4; 암 7:1; 나 3:17)

이 용어는 구약성서에 3번 나온다. 이사야 33:4에서는 하실과 평행구를 이루어 ‘뛰어오르는’ 적군의 동작을 묘사하는 은유로 쓰인다. 이 용어들은 ‘떼를 짓다’ 또는 ‘함께 모이다’는 뜻의 동사와 연관이 있고, 주로 떼로 몰려다니는 위협적 무리를 묘사하는 대목에 등장한다고 호프는 설명한다.¹⁷⁾ 아모스 7:1에서 고바이가 땅의 풀을 모두 뜯어 먹는 재앙의 원인자로 묘사되었으며, 나훔 3:17에는 아르베와 평행구에 등장하여 높이 날아가 버리는 특징이 강조되고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게브, 고바이는 떼를 지어 무리를 이루어 이동하고, 땅의 풀을 뜯어먹는 메뚜기의 일반적 특성을 가진다. 특별히 뛰어오르는 특성이 강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보아 다른 메뚜기과 곤충보다 더 높이 뛰어오르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2.1.4. 가잠(גַּזָּמ)(욘 1:4; 2:25; 암 4:9)

가잠은 아모스 4:9에서 동산의 포도원과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를 다 먹었다고 묘사되는 데, 피해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하여 어른메뚜기가 더 적절해 보인다. 요엘 1:4에서 언급된 네 개의 메뚜기 곤충 이름이 크기의 변화에 따라 나열된 것으로 보아 제일 처음 나온 가잠은 큰 메뚜기로 해석할 수 있어 보인다.

2.1.5. 하실(חֲסִיל)(왕상 8:37; 대하 6:28; 시 78:46; 사 33:4; 욘 1:4; 2:25)

하실은 열왕기상 8:37과 역대하 6:28에서 아르베와 함께 재앙을 일으킨 곤충으로 언급된다. 시편 78:46에서도 이 두 히브리어가 평행구에서 쓰였는데 많은 주석가들이 이 단어들은 어른메뚜기(아르베)와 새끼메뚜기(하실)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다. 호프도 하실이 엘레크와 더불어 새끼메뚜기 형태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점에 일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한다.¹⁸⁾

17) Ibid., 205.

18) Ibid., 206.

이사야 33:4에서 하실은 게브와 평행구로 나오는 데 여기서도 하실은 새끼메뚜기를, 게빔은 높이 뛰어오르는 어른메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정리하면 하실은 새끼메뚜기로, 떼를 지어 다니며 곡식을 먹어치우는 메뚜기의 일반적인 특성을 가진다(욥 1:4; 2:25).

2.1.6. 엘레크(קֶלֶק)(시 105:34; 렘 51:14, 27; 욥 1:4; 2:25; 나 3:15, 16)

엘레크는 시편 105:34에서 아르베와 평행어로 쓰였으며 밭에 있는 열매를 먹어치우는 해충으로 묘사된다. 시편 78:46과 마찬가지로 이 단어가 아르베와 평행어로 나오는데, 많은 주석가들이 이 단어들은 성충메뚜기(아르베)와 새끼메뚜기(하실)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다. 호프도 하실이 엘레크와 더불어 새끼메뚜기 형태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점에 일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한다.¹⁹⁾ 예레미야 51:14에서 이 단어는 사람의 수가 가득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맹세를 소개하는 맥락에서 숫자가 많은 풍성함을 상징한다. 예레미야 51:27과 요엘 1:4; 2:25에서 엘레크는 많은 수를 상징하는 의미로 쓰인다. 이로써 엘레크는 수효가 많은 메뚜기 떼의 극성스러움과 군집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쓰인 공통점이 있다. 정리하면, 엘레크는 하실과 함께 새끼메뚜기를 가리키는 용어로 보인다.

2.1.7. 첼라찰(חֶלְרָצָל)(신 28:42; 사 18:1)

신명기 28:42에서 첼라찰은 모든 나무와 토지의 소산을 모조리 갉아먹는 곤충으로 묘사되었다. 이사야 18:1에서 구스 땅은 ‘첼레찰의 땅’으로 불린다.

2.2. 한국의 메뚜기

메뚜기과의 곤충은 여치류, 귀뚜라미류, 메뚜기류의 무리로 세분된다. 북극과 남극을 제외한 전 세계에 분포하며, 약 15,000여 종이 알려져 있다. 특히 열대 지방에 많으며, 우리나라에는 약 200여 종이 분포하고 있다.²⁰⁾ 메뚜기과 곤충들은 짧은 촉각, 특이한 머리 모양, 말안장 모양의 앞가슴, 특별한 날개, 도약하기 위한 강한 뒷다리가 특징이다. 한국에서 벼메뚜기는 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메뚜기로 약충과 성충이 벼 잎을 먹는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큰 피해를 받은 것은 풀무치에 의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풀무

19) Ibid.

20) 김정환, 『원색도감: 한국의 잠자리, 메뚜기, 사마귀, 대벌레』 (서울: 교학사, 1998), 297.

치와 같은 이동형 메뚜기는 정주형에 비하여 날개가 길고 폭식성이며 신경 질적이어서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한다.²¹⁾

한글 성서에는 히브리어 메뚜기과 곤충 이름을 팔중이, 황충, 풀무치, 느치, 누리, 방아깨비, 귀뚜라미, 베짖이 등으로 번역하였다. 이 단원에서는 이 곤충들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정리해보았다. 기본적인 분류와 특징은 김정환의 『원색도감: 한국의 잠자리, 메뚜기, 사마귀, 대벌레』를 참조하였으며,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이름은 다양한 백과사전에서 그 의미를 찾아 정리하였다.

풀무치 또는 황충(*Locusta migratoria*)은 메뚜기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몸 길이는 48~65mm(날개 끝까지)이며 몸 빛깔은 녹색과 갈색, 녹갈색이다. 팔중이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크기가 더 크다.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산간벽지나 묘지 주변의 잡초와 풀이 우거진 곳에 서식한다. 벼과 식물을 주된 먹이로 하고, 식성은 매우 좋은 편이다. 온도, 습도, 햇빛, 먹이 등의 환경조건이 적합하면 많은 개체가 발생해서 떼를 지어 날아다니며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풀숲에 숨어 있으면 눈에 잘 띄지 않고, 적에게서 도망칠 때는 높이 올라가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다. 알로 겨울을 지낸다. 한국 등 전 세계에 분포한다.²²⁾

메뚜기(*Oxya velox* [Fabricius])는 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메뚜기로 약충과 성충이 벼 잎을 먹는다.²³⁾

팔중이(*Oedaieus infemalis*)는 산기슭이나 하천가에 있는 풀밭이나 자갈밭에 서식한다. 주행성으로 낮에 활동이 활발하며 주된 먹이는 콩과 식물이다. 몸길이가 32~45mm(날개 끝까지)로 작은 편이다. 한국·일본·중국 등지에 분포한다.²⁴⁾

방아깨비(*Acrida cinerea*)는 논밭 두렁, 하천변의 화본과 식물이 자생하는 초원에 주로 많다. 수컷은 날 때에 앞날개와 뒷날개를 서로 마찰하여 ‘타타타’ 하는 소리를 낸다. 벼과 식물을 주로 먹는다. 강한 턱을 이용해 주로 벼과 식물을 잘게 씹어서 먹는다. 한국·일본·타이완·중국 등지에 분포한다.²⁵⁾

21) “메뚜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2017. 7. 19.).

22) “황충이”,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298064&supid=kku000380502> (2017. 7. 19.).

풀무치(*Locusta migratoria* [Linnaeus])는 무리를 지어 떼를 지어 날아다니며 농작물을 망쳐놓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온도와 습도, 일광, 식초 등의 환경 조건이 좋으면 많이 발생하는데 황충이란 이름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김정환, 『한국의 잠자리, 메뚜기』, 418.

23) 김정환, 『한국의 잠자리, 메뚜기』, 422.

24) Ibid., 414.

누리는 메뚜기과에 속한 곤충으로 몸빛은 녹색 또는 갈색이며 길이는 50~60mm 정도이다. 주로 열대 초원지대에 떼를 지어 사는 데 무리를 지어 이동할 때 농작물에 큰 해를 끼치기도 한다.²⁶⁾

느치는 딱정벌레의 하나로 몸길이는 6~10mm이고 평평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검은 갈색 또는 붉은 갈색이다. 가슴은 머리보다 크고 배는 가슴과 폭이 같다. 더듬이는 곤봉 모양으로 열한 마디이고 온몸에 점무늬가 있다. 쌀, 보리, 나무 따위를 해친다. 전 세계에 분포한다.²⁷⁾

귀뚜라미(criquet, *Velarifictorus aspersus*)는 한국의 식용 곤충의 하나로 메뚜기아목에 속하는 귀뚜라미과 곤충이다. 귀뚜라미는 인가 주위에서 살며 초원이나 정원의 돌 밑에서 볼 수 있다. 야행성이며 잡식성이다. 산란관을 땅속에 꽂고 산란한다. 알 상태로 땅속에서 월동한다.²⁸⁾

베짱이(*Hexacentrus japonicus* [Karny])는 앞이 탁 트인 들녘의 풀밭이나 길가에서 서식한다. 야행성이며, 육식성이다. 앞에서 앞으로, 나무에서 나무로 날아 이동하면서 다른 곤충을 잡아먹는다. 한국과 일본에 분포한다.²⁹⁾

2.3. 히브리어 메뚜기과 곤충 용어와 한글 번역

지금까지 성서 속의 메뚜기를 지칭하는 9개의 히브리어의 특징과 한글 성서에 언급된 메뚜기목 곤충의 한국 이름을 검토한 결과, 히브리어 메뚜기 곤충 이름과 한국의 메뚜기 곤충 이름은 용어상의 일치점을 찾기보다 그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내용 동등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무엇보다도 한국 독자들에게 메뚜기과 곤충의 세부적인 구분이 용어로 친숙하지 않고, 곤충 이름 자체로 문학적 맥락에서 묘사하고자 하는 의미상의 차이를 구별해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곤충의 이름을 제시하기보다 특징을 수식어로 덧붙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이상을 정리하면, 아르베는 이동형 메뚜기인 풀무치, 게브는 정착형 메뚜기, 하실과 엘레크는 새끼메뚜기, 하가브는 작은메뚜기, 가잠은 큰메뚜기로 보인다. 특별히 메뚜기가 떼로 몰려와 작물에 피해를 준 것을 묘사하는 본문에서는 메뚜기 이름에 ‘떼’를 첨가하여 번역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25) Ibid., 382.

26) “누리”,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053627&supid=kku000068755&q=누리> (2017. 7. 19.).

27) “느치”,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054841&supid=kku000070034> (2017. 7. 19.).

28) 김정환, 『한국의 잠자리, 메뚜기』, 416.

29) Ibid.

3. 성서 속 메뚜기와 곤충의 번역

성서에서 메뚜기와 곤충은 비평행 구문에서는 그 곤충이 상징하는 특징을 통해 본문의 메시지를 직접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하지만, 평행구문에서는 평행법의 종류와 평행하는 용어와의 관계 속에서 달라지는 은유의 유비 범주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비평행 구문에서는 내용 동등성의 원칙에 따라, 평행구문에서는 문학적 기능 동등성의 번역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단원에서는 각 용어가 지니는 특징을 고려하면서 각 구절이 한글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소개한 뒤, 평행 구문에서 언급된 메뚜기와 곤충은 문학적 기능 동등성의 원칙에 따라 번역할 것을 제안할 것이다.

3.1. 비평행구문에서 내용 동등성의 원칙에 따른 용어 번역

히브리어 메뚜기와 곤충이름이 산문에서 언급된 곳은 레위기 11:22; 열왕기상 8:37; 역대하 6:28; 7:13; 민수기 13:33; 이사야 40:22; 전도서 12:5; 요엘 2:25 등이다.³⁰⁾

3.1.1. 레위기 11:22

레위기 11:22은 산문구절로 식용 곤충의 목록을 언급한다. 한글 성서 번역본들은 네 개의 히브리어를 다소 다르게 번역하였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은 “메뚜기”(‘*arbeh*), “베짱이”(*sol’am*), “귀뚜라미”(chargol), “팔중이”(chagav)로 번역한 반면, 『성경전서 새번역』과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은 동일하게 “메뚜기”(‘*arbeh*)와 “방아깨비”(*sol’am*)와 “누리”(chargol)와 “귀뚜라미”(chagav)로 옮겼다. 한국의 메뚜기목 곤충에서 식용으로 쓰이는 것은 메뚜기과와 귀뚜라미과이다. 여치과 곤충은 식용으로 쓰이지 않는다. 메뚜기, 풀무치, 귀뚜라미는 한국뿐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 먹이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³¹⁾

30) 요엘 2:25는 1:4의 평행구문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다음 단원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31) 참고로 “영어 번역본 중에서 NEB와 REB는 네 종류의 메뚜기로 번역할 것을 선택하여, “큰 메뚜기”(‘*arbeh*), “긴머리메뚜기”(*sol’am*), “초록메뚜기”(chargol), 그리고 “사막메뚜기”(chagav)로 번역한다. 이러한 명칭들은 각 단어의 어원에 대한 추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히브리어가 유래한 고대 셈계 언어의 어원을 추적하였다.” 그러나 호프(Edward R. Hope)는 단어의 뜻을 어원에서 추론하는 근거로 사용하기엔 매우 모호하며, 학자들도 이 단어들의 특별한 어원에 대한 주장을 거의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Edward R. Hope, *All Creatures Great and Small*, 206.

한글 성서 번역본들에서 언급된 이름들 중에 메뚜기, 황충, 팔중이, 누리, 귀뚜라미는 본문이 의도하는 식용 곤충의 의미에 맞는 용어이므로 적절하지만 여치과 곤충인 베짚이를 포함시킨 『개역개정』의 번역은 부적절한 용어 선택으로 여겨진다. 레위기 11:22는 현재에도 식용으로 쓰이는 메뚜기와 귀뚜라미의 이름을 포함하고, 솔암과 하르골은 이 구절에서만 언급되는 점을 고려하였다. 아르베와 하가브는 메뚜기과 중에서 잘 알려진 메뚜기 이름으로, 이 구절에서만 한 번 언급된 솔암은 잘 알려지지 않은 메뚜기 이름으로, 그리고 하르골은 귀뚜라미과의 대표적 이름인 귀뚜라미로 번역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 따라서 레위기 11:22는, “그 중에 너희는 풀무치, 메뚜기, 귀뚜라미는 먹을 것이라”고 번역한 뒤 각주로 ‘히브리어에는 네 개의 곤충 이름이 언급되어 있다’고 덧붙이는 번역을 제안한다.

3.1.2. 열왕기상 8:37, 역대하 6:28; 7:13

열왕기상 8:37과 역대하 6:28에 나오는 재난 목록에 언급된 히브리어는 아르베와 하실이며, 이 단어들을 『개역개정』은 “메뚜기”(아르베)와 “황충”(하실)으로, 『새번역』은 “메뚜기 떼”(아르베)나 “누리 떼”(하실)로, 『공동개정』은 “메뚜기, 누리떼”로 번역하였다. 이와 병행하는 역대하 6:28의 번역도 동일하다. 한글 성서의 번역은 모두 재난이나 전염병의 목록 중 하나로 곡식을 갹아먹는 두 종류의 해충으로 해석하였다. 그 이유 때문에 조사가 메뚜기 떼와 누리 떼가 아니고 메뚜기 떼나 누리 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이 두 이름이 다른 두 종류의 메뚜기 이름이라기보다는 어른메뚜기와 새끼메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 “크고 작은 메뚜기들”, 그리고 “어른메뚜기와 새끼들”로 번역할 가능성도 있다. 하실은 시편 78:46과 이사야 33:4에서 어른메뚜기와 평행구에 언급되어 새끼메뚜기를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열왕기상 8:37과 역대하 6:28은 “어른메뚜기와 새끼메뚜기”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역대하 7:13은 작은메뚜기(하가브; 민 13:33; 사 40:22 아래 참조)를 시켜 땅에 있는 것을 갹아먹게 시켰다는 심판의 의미를 담아 “작은메뚜기를 시켜 땅에 있는 것을 갹아먹게 하거나”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3.1.3. 민수기 13:33, 이사야 40:22, 전도서 12:5

다음으로 비평행 문구에서 하가브는 작고 하찮은 존재를 상징하는데 쓰였다(민 13:33; 사 40:22; 전 12:5). 문자적인 번역은 이런 의미를 담아내기 쉽지 않다. 민수기 13:33과 이사야 40:22는 네피림과 하나님과 비교하여 이

스라엘인과 인간의 작고 하찮음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이 구절에서 하가브는 한국 문화에서 작고 하찮은 존재를 상징하는 “개미”, “벼룩” 등의 다른 곤충 이름으로 대체하여 옮기는 것도 의미를 좀 더 살리는 번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³²⁾

전도서 12:5의 경우는 상응하는 용어를 찾아 번역하기보다는 문장의 의미를 풀어서 번역하는 편이 구절 속의 메시지를 더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번역』의 “원기가 떨어져서”가 적절한 번역으로 보인다.

3.1.4. 신명기 28:42, 이사야 18:1

첼라찰은 신명기 28:42에서는 나무나 밭의 곡식을 먹는 해충으로 묘사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용어인 메뚜기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사야 18:1에서 구스를 ‘첼레찰의 땅’이라고 부르는 데, 한글 번역본은 모두 날개 치는 소리를 내는 곤충의 특성을 부각시켜 『개역개정』은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으로, 『새번역』은 “벌레들이 날개 치는 소리가 나는 땅”으로, 『공동개정』은 “날벌레가 우글거리는 나라”로 옮기는데 소리의 특성을 살린 『개역개정』이나 『새번역』의 번역이 적절해 보인다.

3.2. 히브리 평행구에 나타난 메뚜기

메뚜기 관련 히브리어가 평행구에 언급되는 사례는 시편 78:46; 105:34; 이사야 33:4; 요엘 1:4; 나훔 3:15-17 등이다. 여기서는 히브리 시의 평행법을 기초로 하여, 문학적 기능 동등성의 원칙에 따른 번역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3.2.1. 히브리 시 평행법과 성서 번역

히브리 시 연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논의 중 하나가 평행법인데,³³⁾ 히브리 시의 평행법 이해는 성서번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김정우는 평행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시의 형식적 아름다움을 상실하는 경우(개역 전통)가 생겼을 뿐 아니라 시의 의미 전달에도 실패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였다고 지적한다.³⁴⁾ 『성경전서 표준새번역』의 경우는 평행을 이루는 두 행의 의미를 하나로 합쳐서 표현한 경우도 자주 발견되고 있

32) Ibid., 205.

33) 김정우, “히브리 시의 평행법과 성경번역: 이론적 기초”, 『히브리시학』(서울: 기혼, 2013), 71.

34) Ibid., 72.

음에 유감을 표한다.³⁵⁾ 히브리 시의 번역은 히브리 시의 평행법의 구조와 특성을 잘 이해하여 시적 의미를 잘 살릴 수 있어야 한다.

평행법 논의를 촉발시킨 로버트 로우스(Robert Lowth)는 평행법을, “시의 한 절 혹은 한 행과 다른 절 혹은 다른 행 사이의 상응성”이라고 정의한다.³⁶⁾ 로우스는 그의 이사야 주석에서 두 행(lines) 안에서 평행하는 구들을 “*parallelismus membrorum*”(평행구)이라고 부르고, 평행구의 종류를 동의적 평행법(synonymous parallelism), 반의적 평행법(antithetic parallelism), 통합적 평행법(synthetic parallelism)으로 구분하였다. 이 구분은 의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³⁷⁾ 로우스의 평행법 이해는 이후 동의성과 반복성만 주로 강조되어 오다가, 1980년대 히브리 시 문학에 관한 활발한 연구 속에 평행구 사이의 변이성과 연속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³⁸⁾ 즉 히브리 시의 평행구는 단순한 반복만이 아니라 의미의 확장과 심화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쓰였던 수사학적 기법이다. 아델 벌린(Adele Berlin)은 “평행법은 중복성과 다의성, 명확화와 모호성, 등가 안에서의 대조로 구성되어 있다. 평행법은 메시지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그 시야는 두 눈으로 보는 것과 같다. 인간의 시야와 같이 동일한 물체의 두 개의 약간 서로 다른 관점들을 겹쳐 보이게 하고 그들의 초점으로부터 깊이 있는 의미를 산출해 낸다”고 설명한다.³⁹⁾

35) 김정우, “『표준새번역』과 『표준새번역 개정판』의 시편 번역에 대한 평가”, 『신학지남』 225 (1998), 9-27.

36) Robert Lowth, *Lectures on the Sacred Poetry of the Hebrews*, G. Gregory, trans. (London: J. Johnson, 1787; Boston: Joseph T. Buckingham, 1815 재출판), 257-258.

37) Ibid., 259-273.

38) 쿠글(James Kugel)과 알터(Robert Alter)가 의미론적 평행법에 대한 지금까지의 이해를 수정해 주었다면, 콜린스(T. Collins)와 아델 벌린(Adele Berlin)등은 히브리 시 평행법 논의를 어휘적 문법적(구문론적) 영역으로 끌어들었다. 1980년대 이후 평행법을 다룬 단행본을 몇 개 소개하면 아래와 같으며, 1985년 이후 출간된 평행법 연구에 대한 대표적인 총서는 벌린의 『성경 평행법의 역동성』, 24-27을 참조하라. G. B. Gray, *The Forms of Hebrew Poetry* (New York: Ktav, 1972); Terence Collins, *Line-Forms in Hebrew Poetry: A Grammatical Approach to the Stylistic Study of the Hebrew Prophets*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78); Stephen Geller, *Parallelism in Early Poetry of Israel* (Missoula: Scholars Press, 1979); Michael P. O'Connor, *Hebrew Verse Structure* (Winona Lake: Eisenbrauns, 1980); James Kugel, *The Idea of Biblical Poetry: Parallelism and its Hist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1); Wilfred G. E. Watson, *Classical Hebrew Poetry: A Guide to its Technique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4); Robert Alter, *The Art of Biblical Poetry* (New York: Basic Books, 1985); A. 벌린, 『성경 평행법의 역동성』, 이희성 역 (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2012); Adele Berlin, *The Dynamics of Biblical Parallelism*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5;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Dearborn: Dove Booksellers, 2008, revised).

39) A. 벌린, 『성경 평행법의 역동성』, 176.

히브리 시의 평행법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의미의 확장과 심화를 표현하는 수사학적 기법이라면, 은유의 도구로 평행되어 등장하는 메뚜기의 이름도 이러한 수사학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자는 점층적 혹은 점강적 평행구의 강도의 차이를 번역용어에 반영하여 번역할 필요가 있다.

3.2.2. 시편 78:46

시편 78:46의 평행구에는 히브리어 하실과 아르베가 쓰였다.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은 각각 아래와 같이 번역하였다.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개역개정』)

농작물을 해충에게 내주시고,
애써서 거둔 곡식을 메뚜기에게 내주셨다. (『새번역』)

그들의 소출을 누리떼에게 내주셨고,
애써 가꾼 곡식을 메뚜기떼에게 주셨으며, (『공동개정』)

이 절에서 에블람과 예기암 그리고 하실과 아르베가, 두 번째 행이 첫 번째 행의 의미를 확장 심화시키는 점층적 평행구로 쓰였다. 첫 번째 평행어인 에블람과 예기암이 의미의 확장된 개념을 표현해주고 있으며, 메뚜기와 곤충의 두 용어가 열왕기상 8:37과 역대하 6:28의 산문 문장에서 두 개의 메뚜기 이름이 아니라 새끼메뚜기와 어른메뚜기를 묘사한다. 또한 메뚜기가 떼로 몰려다니며 곡물을 해치는 특성을 살려 ‘떼’를 넣어 번역하였다. 따라서 시편 78:46의 번역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그가 초지(에블람)를 새끼메뚜기떼(하실)에게 주었고,
그 토산물(예기암)을 성충메뚜기떼(아르베)에게 주었다.

3.2.3. 시편 105:34-35

시편 105:34에서는 히브리어 아르베와 엘레크가 평행구에 동의적 평행어로 나온다. 35절이 이 메뚜기들의 기능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이를 35절과 함께 한글 번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34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아르베)과 수많은 메뚜기(엘레크)가

몰려와

35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개역개정』)

34 그가 말씀하시니, 이런 메뚜기 저런 메뚜기 할 것 없이 수없이 몰려와서,

35 온갖 풀을 갹아먹고 땅에서 나는 모든 열매를 먹어 치웠다. (『새번역』)

34 말씀 한마디로 메뚜기와 누리떼가 수없이 덮쳐와서

35 온 나라의 풀을 모조리 갹아먹고 땅에서 나는 온갖 곡식도 먹어 치웠다. (『공동개정』)

시편 105:34-35는 시편 78:46과 반대로 점강적 평행구이다. 35절의 땅에 있는 모든 풀에서 밭으로 규모가 작아지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는 또 다른 평행어는 성충메뚜기(아르베)와 새끼메뚜기(엘레크)로 규모가 작아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모두 메뚜기가 떼로 몰려다니는 특성과 곡식을 먹어치우는 파괴성을 특징으로 하지만 엘레크는 특별히 무리의 수가 많음을 묘사하는 데 쓰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편 105:34-35를 다음과 같이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34 그가 말씀하시니, 메뚜기떼와 새끼메뚜기떼가 수없이 덮쳐 와서

35 그들의 땅에 난 풀을 모조리 갹아먹고, 그들의 밭에 난 곡식을 먹어 치웠다.

3.2.4. 이사야 33:4

이사야 33:4에서는 히브리어 하실과 게브가 쓰였으며 한글 번역본은 이를 아래와 같이 옮긴다.

황충의 떼 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략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개역개정』)

민족들아, 사람들이 황충이 떼처럼 몰려들어서, 너희가 약탈한 전리품을 빼앗을 것이다.

메뚜기 떼가 뛰어오르듯, 사람들이 그 탈취물 위에 달려들 것이다.

(『새번역』)

당신의 백성은 메뚜기떼처럼 전리품을 모아 들고
누리떼처럼 그 전리품을 덮칠 것입니다. (『공동개정』)

하실은 새끼메뚜기를, 게브는 어른메뚜기를 가리키는 포괄적인 이름을 뜻하므로 이 평행구는 시편 78:46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행이 첫 번째 행을 확장 발전시키는 점층적 평행법을 이룬다. 이 특징을 살려 이 절을 아래와 같이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새끼메뚜기떼가 휩쓸어가듯 그들의 노략물이 강탈될 것이며,
사람들이 어른메뚜기떼처럼 그들의 전리품에 떼로 달려들 것이다.

3.2.5. 요엘 1:4

요엘 1:4는 평행구에 네 개의 다른 히브리어-가잠, 아르베, 엘레크, 하실을 은유로 사용한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목록이 메뚜기의 네 성장단계를 가리킨다고 보아, 이 용어들을 떼 지어 이동하는 어른메뚜기들(가잠), 한 곳에 머무는 메뚜기들(아르베), 날개 없는 새끼메뚜기(엘레크), 기어다니는 유충(하실)으로 해석한다. 몇몇 학자들은 엘레크와 하실을 메뚜기의 다른 성장단계를 반영하기보다는 메뚜기의 다른 종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한글 번역본에서는 요엘 1:4를 아래와 같이 번역한다.

팔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개역개정』)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갇아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 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 버렸다. (『새번역』)

『새번역』은 “여기에서 진술된 것이 메뚜기의 종류를 말하는 것인지, 메뚜기의 성장 과정 네 단계를 말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음”이란 각주를 달았다.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갇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가 탕쳐 먹었다 (『공동개정』)

메뚜기의 특성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잠과 아르베는 어른메뚜기를, 엘레크와 하실은 새끼메뚜기를 가리킨다. 점강적 평행구의 특성을 살려 아래와 같이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큰 메뚜기 떼가 남겨놓고 간 것을, 메뚜기들이 먹었다
 메뚜기들이 남겨놓은 것을, 작은 메뚜기 떼가 먹었다.
 작은 메뚜기 떼가 남겨놓은 것을, 새끼 메뚜기들이 먹었다.

아울러 이 구절에서 언급된 네 개의 메뚜기 이름은 요엘 2:25에 곡물에 큰 피해를 끼치는 메뚜기 종류로 순서가 바뀌어 아르베, 가잠, 하실, 엘레크 순으로 나온다. 『개역개정』은 이를 “메뚜기”, “느치”, “황충”, “팔중이”로, 『새번역』은 “메뚜기”, “누리”, “황충”, “풀무치”로, 그리고 『공동개정』은 “메뚜기”, “누리”, “황충이”, “풀무치”로 옮긴다. 요엘 2:25는 네 곤충의 이름이 평행구문에서 모두 언급된 요엘 1:4를 전제한다고 볼 때 각각의 용어를 풀무치, 메뚜기, 새끼메뚜기, 메뚜기 유충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3.2.6. 나훔 3:15-17

나훔 3:15-17에는 메뚜기와 곤충을 가리키는 세 개의 히브리 단어-엘레크, 아르베, 고바이가 언급된다. 본문은 아래와 같다.

15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엘레크)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엘레크) 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아르베) 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16 내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엘레크)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17 네 방백은 메뚜기(아르베)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고바이)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
 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개역개정』)

15 느치가 풀을 먹어 치우듯이, 거기에서 불이 너를 삼킬 것이고, 칼이
 너를 벨 것이다.
 느치처럼 불어나 보려무나. 메뚜기처럼 불어나 보려무나.
 16 내가 상인들을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땅을 황폐하게 하고 날아가듯이 그들이 날아가고 말 것이다.
 17 너희 수비대가 메뚜기 떼처럼 많고

너의 관리들이 느치처럼 많아도,
 추울 때에는 울타리에 붙어 있다가 해가 떠오르면 날아가고 마는 메
 뚜기 떼처럼,
 어디론가 멀리 날아가고 말 것이다. (『새번역』)

15 모두 쓸데없는 일, 너는 불타버리고 사람들은 모두 칼에 맞아 죽으
 리라.

뛰는 메뚜기처럼 불어나려무나. 날아가는 메뚜기처럼 불어나려무나.
 16-17 하늘의 별처럼 많은 밀정을 풀어놓아 보려무나.
 날아가는 메뚜기만큼 수비대를 세워보려무나.
 누리때만큼 관리들을 두어보려무나.
 겨울날 담장에 충충히 붙었다가도 해만 뜨면 탈바꿈하고 멀리 날아가
 버리는 메뚜기처럼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리라. (『공동개정』)

15절 상반부의 엘레크의 식성이 불로 인한 피해와 칼의 공격과 평행되어 언급되면서 치명적인 파괴력을 묘사하고 있다. 즉 엘레크가 먹는 것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15절 하반부는 엘레크와 아르베가 동의적 평행구로 숫자의 불어남을 표현한다. 두 번째 구가 “스스로 많이 할지어다”로 동일하게 반복되어 있으므로 단순한 평행구로 보이지만, 시인은 다른 두 히브리어를 사용하여 점층적 의미를 살려주고 있다(시 105:34 참조). 16절은 엘레크가 수적인 번성함을 표현하는데 다시 한번 쓰였는데 예레미야 46:23에서도 엘레크가 수적인 번성함을 묘사한다. 이어지는 17절은 많은 수를 표현하기 위해 아르베와 고브를 사용하는데 이는 16절의 엘레크와 함께 메뚜기의 크기를 점층적 평행을 이루도록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메뚜기들은 1) 많은 수, 2) 파괴성, 3) 임시성(일시적인 방문자들)을 위한 은유로 사용되고 있으며 용어의 선택은 점층적 평행구의 기법을 따르고 있다.

시구의 상응하는 구조를 살리고 이에 맞춰 메뚜기를 가리키는 세 단어를 다르게 번역에 반영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15 비록 화염이 너를 삼킬지라도,
 칼이 너를 쓰러뜨릴지라도,
 이는 새끼메뚜기떼가 풀을 먹어치움과 같을 것이다.
 곱절로
 새끼메뚜기같이!
 곱절로
 메뚜기같이!

16 하늘의 별들보다 더 많아질 때까지
 너는 상인들의 숫자를 늘렸다.
 이는 새끼메뚜기가 기습하였다가 날아 가버리는 것 같구나.
 17 너의 방백들은 메뚜기와 같고,
 너의 전령들은 큰메뚜기와 같으니
 추운 날에
 돌 벽을 쌓는 것과 같다.
 해가 나오면
 날아가버리는 것과 같다.
 그들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구나.

4. 글을 마치면서

성서를 번역하다 보면 성서의 역사와 문화, 히브리 문학의 기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에 봉착할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한다. 그 중 하나가 동물과 식물의 이름처럼 일반인으로서 생소한 분야의 용어들을 선택하고 번역할 경우이다. 한 사례로 이 논문은 메뚜기과 곤충 이름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번역자가 성서 속의 전문용어를 번역할 때 히브리어 용어의 특징을 형식 일치의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사전적 용어를 찾아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히브리어 전문용어가 묘사하고자 하는 의미를 살려 비평행구 본문에서는 내용 동등성의 원칙에 따라, 평행구 본문에서는 평행기법을 살릴 수 있는 문학적 기능 동등성의 원칙에 따라 번역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히브리어 메뚜기과 곤충들 용어에 상응하는 한국 메뚜기 이름을 찾는 것이 어려울뿐더러 한국 독자에게 메뚜기과의 다양한 곤충 이름이 익숙하지 않으므로 메뚜기의 다른 이름을 본문에 넣어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원문의 의미 전달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한 곤충 이름만으로는 히브리 평행구가 수사기법을 통해 의미를 심화하거나 확장하려는 의도를 잘 살려내는 번역을 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형식일치의 번역보다는 의미를 살린 실제적인 번역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동물학에 문외한인 비전문가로서 동물과 식물의 이름 등을 비롯한 전문용어를 한국어에서 선택하는 작업이 무척이나 어려웠다. 번역할 때 외국어보다 한국어 실력이 더 중요함을 다시 깨닫기도 하였다. 이를 극복

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성서 번역자들 사이에서 UBS가 제시하는 번역 안내서처럼 한국어 전문용어 번역 안내서 등을 공동작업으로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전문용어의 번역에 대한 전반적인 용어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성서 번역자가 문학적 기능을 살리기 위해 용어를 선택하는데 훨씬 쉽고 정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주요어>(Keywords)

문학적 기능 동등성의 원칙, 내용 동등성의 원칙, 전문용어 번역, 성서 속의 동물 번역, 메뚜기.

literary functional equivalence, dynamic equivalence, translation of technical terminology, translation of fauna in the Bible, locust.

(투고 일자: 2017년 7월 31일, 심사 일자: 2017년 9월 4일, 게재 확정 일자: 2017년 10월 26일)

<참고문헌>(References)

- 김정우, “『표준새번역』과 『표준새번역 개정판』의 시편 번역에 대한 평가”, 『신학지남』 225 (1998), 9-27.
- 김정우, “히브리 시의 평행법과 성경번역: 이론적 기초”, 『히브리시학』, 서울: 기혼, 2013.
- 김정환, 『원색도감: 한국의 잠자리, 메뚜기, 사마귀, 대벌레』, 서울: 교학사, 1998.
- 모졸라, 알루,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성서번역”, 『성경원문연구』 14 (2004), 128-139.
- 벌린, A., 『성경 평행법의 역동성』, 이희성 역, 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2012.
- 왕대일, “성서 번역 새로 보기 -문예적 번역과 문학 기능 동등성-”, 『성경원문연구』 20 (2007), 52-73.
- 윌트, 티모시, “문학적 기능의 동등성: 그 몇 경우”, 『성경원문연구』 15 (2004), 117-153.
- 이영미, “문학비평적 성서해석과 번역: 애가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7 (2010), 18-21.
- 쿱스, 로버트, 『성서 속의 식물들』, 권성달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5.
- 프리츠, 레이, 『성서 속의 물건들』, 김창락, 박형대, 양재훈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1.
- “누리”,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053627&supid=kku000068755&q=누리> (2017. 7. 19.).
- “느치”,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054841&supid=kku000070034> (2017. 7. 19.).
- 『다음어학사전』, <http://dic.daum.net>.
- 『두산백과사전 두피디아』, <http://www.doopedia.co.kr/>.
- “메뚜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2017. 7. 19.).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 “황충이”,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298064&supid=kku000380502> (2017. 7. 19.).
- Hope, Edward R., *All Creatures Great and Small: Living Things in the Bible*,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2005.
- Lowth, Robert, *Isaiah. A New Translation with a Preliminary Dissertation, and Notes Critical, Philological, and Explanatory*, London: J. Nicholas, 1779.
- Lowth, Robert, *Lectures on the Sacred Poetry of the Hebrews (De sacra poesi Hebræorum. Prælectiones academice Oxonii habitæ)*, G. Gregory, trans., London: J. Johnson, 1787; Hildesheim: Georg Olms Verlag, 1969 재출판.
- Nida, Eugene A.,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Leiden: E. J. Brill, 1964.

<Abstract>

A Short Reflection on the Translation of the Names of 'Locust' in the Old Testament

Yeong Mee Lee
(Hanshin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suggests to translate technical terminology, such as names of materials, plants, and animals in the Bible into Korean based on the principle of 'dynamic equivalence' in narrative texts, and 'literary functional equivalence' in poetic parallel lines. The term that refers to 'locust' is the case study for this paper.

The difficulty of translating technical biblical terminology into Korean names is threefold. First is the lack of understanding about the actual characteristics of the given terminology in biblical culture. Second, it is hard to find an equivalent terminology because of the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he world of the Bible and Korea. Third, there are cases where some terminologies symbolize different or even opposite meaning in their respective cultures. For these difficulties, translation of technical terminology of the Bible needs to follow the principles of 'dynamic equivalence' or 'literary functional equivalence' instead of 'formal equivalence'.

The study first explained characteristics of biblical terms for locust in Hebrew to provide the background for choosing equivalent terms in Korean. There are nine different words used to refer to various kinds of locusts: *'arbeh*, *chagav*, *sol'am*, *chargol*, *gev* (or *govay*), *gazam*, *chasil*, *yeleq*, *tselatsal*. The term, *'arbeh* is most common word. Second, it examined the names of locust that appear in Korean Bible translations to see if the names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locust in Hebrew. Most Korean Bible translations of locust are not coherent in the use of equivalent terms between Hebrew and Korean name. Neither did they consider the biblical rhetoric of parallelism. Third, it suggested the term for locust be translated differently in narrative texts and in parallel lines, focusing on the meaning of the name by which biblical author intended to express through its metaphor.

An example, among many cases, comes from Joel 1:4. The names of locust in

Joel 1:4 are not seen as four different kinds of locust. They seem to represent two grown locusts and two baby locusts in parallel lines. Thus the study suggests to translate it as follows:

What the big locusts had left, the locust have eaten;
what the locust had left, the young locust have eaten;
what the young locust had left, the locust swarms have eaten.